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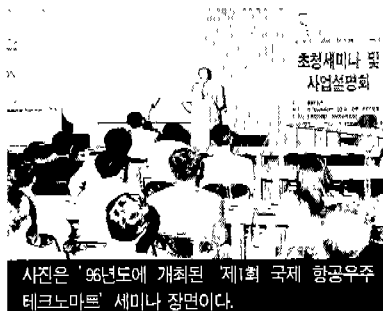
제2회 국제 항공우주 테크노마트, 산업자원부와 협약체결

제2회 국제 항공우주 테크노마트(The 2nd International Aerospace Technomart) 개최를 위한 산업자원부와 우리 협회와의 협약이 6월 28일 체결되었다. 산업자원부의 기술기반조성사업중 국제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우리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항공우주 테크노마트'는 오는 10월 '서울에어쇼 2001' 기간중 서울교육문화회관(양재동)에서 4일동안(10월16일~19일) 개최된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대 국민홍보와 국제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제2회 국제 항공우주 테크노마트는 4가지 주제를 선정, 주제에 따른 국제세미나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이와 함께 기술중계센터를 운영하여 업체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테크노마트 기간중 '종합홍보관'을 병행하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항공우주산업의 역사와 사업에 관한 비디오를 상영, 항공우주산업의 대 국민적 홍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30쪽 참조)



사진은 '96년도에 개최된 제1회 국제 항공우주 테크노마트' 세미나 장면이다.

에어쇼 소식

● '서울에어쇼 2001' 한글 홈페이지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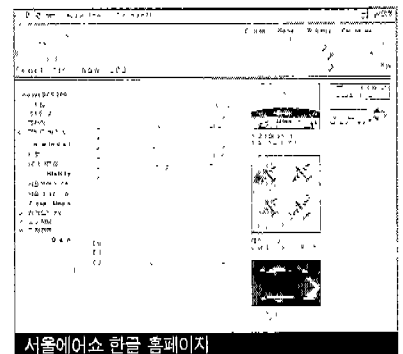
'서울에어쇼 2001' 한글 홈페이지가 지난 6월13일 정식운영에 들어갔다.

해외업체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그동안 영문으로만 제공되었던 서울에어쇼 홈페이지는 에어쇼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과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글판을 새롭게 단장, 시험운영을 거쳐 일반에 소개되었다.

이번에 개설된 한글 홈페이지는 행사안내, 티켓구입안내, 약도, 서울에어쇼 '96/'98 개최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의 취재편의를 위해 공식 보도자료와 국내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의 최근 소식들을 종합 게재하였다. 향후에는 프레스 카드 발급신청도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에어쇼 홈페이지는 야후나 라이코스 등과 같은 외국 검색엔진과 엠파스, 한미르, 심마니 등 국내 웹 검색엔진으로 쉽게 검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 도메인 키워드방식'을 적용하여, 정확한 URL 주소를 모르더라도 URL 기입란에 '에어쇼 또는 서울에어쇼'만 기입하면 창이 열릴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관련 정부기관 및 군 홈페이지와도 연결되어 있다.

홈페이지 URL은 <http://www.seoulairshow.com>이다.



● 비행시뮬레이션 대회 개최

비행시뮬레이션 대회가 서울에어쇼 기간중에 개최된다.

일반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행사참가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제트전투기와 민항기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제트전투기는 Falcon 4.0을 사용하여 (2 Vs 2) 교전형식으로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민항기는 Flight Simulator 2000을 이용하여 이륙, 비행, 착륙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판은 현역 조종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오는 9월중 주말을 이용하여 수도권을 비롯 전국 3개 도시에서 예선전을 거쳐 10월 20일(토)에는 서울에어쇼 비행시물레이션 대회장에서 16강을 치루게 되며, 10월 21일(일)에는 8강 및 결선을 치루게 된다. 비행시물레이션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서울에어쇼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

● 입장권 예매시작

서울에어쇼 입장권 예매가 지난 6월 19일부터 티켓파크(www.ticketpark.com)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에어쇼는 Business Day(10월 15일~18일)와 Public Day(10월 19~21)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Business Day중에는 단 18세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다. Public Day 입장권은 대인 7,000원, 소인 4,000원이며 8월 31일까지 티켓파크 회원에게는 1,000원이 할인된다.

입장권 예매는 서울에어쇼 홈페이지(www.seoulairshow.com)에서 '티켓'을 선택하거나 티켓파크 홈페이지에서 서울에어쇼 배너를 선택하면 된다.

● 행사장 마스터 플랜 완성

서울에어쇼 행사장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어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시설작업에 들어갔다.

행사장인 서울공항은 전시장 기능을

갖추지 않은 공항으로 향후 운영본부에서는 약 36,000평의 활주로에 전시에 필요한 대형 텐트 5개동을 비롯하여 프레스센터, 식당 2개동, 운영본부 사무실 등의 주요 시설물과 매표소, 주차장, 종합안내소, 가판대, 수세식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년도와는 달리 전시참가사를 위하여 주차장을 확대하였으며, 일반 관람객들의 휴식공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에서 홍보부스 운영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지난 5월 20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제 23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에서 서울에어쇼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대회참가자를 대상으로 '서울에어쇼 2001' 홍보를 하였다.

이번 본선대회는 '더 높은 하늘로,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글라이더, 고무동력기, 유선조종, 무선조종, 정밀속소모형기, 무선글라이더, 헬기모형 등 총 7개 부문 25개 종목으로 나뉘어 실시되었으며, 전국 15개 지역 19,000명이 예선을 거쳐 1,800여명의 선수와 12,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항공축제로 치러졌다.

이에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대형 TV를 통해 '98년도 에어쇼 주요장면 방영과 도우미를 통해 서울에어쇼 2001을 소개하였으며, 부스 방문객들에게는 기념품을 배포하였다.

우리협회의 새식구

● 삼흥정공(주)

1987년 5월 삼흥정공(대표이사: 양재렬)으로 출발한 삼흥정공(주)는 CNC 공



삼흥정공주식회사

작기계 부품 및 항공기 부품제작용 JIG와 FIXTURE 및 CNC 공작부품 전문생산업체이다.

원청업체의 1차 VENDER로서 단순임가공의 기업구조로부터 탈피하여, LINE 생산의 기반에서 양산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10여년간 Output보다 Input이 훨씬 많았던 항공기 치공구 및 Parts 산업에 참여하여 IMF 등의 총체적 어려움을 공정기술개발과 매출증대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고품질 및 생산공정기술개발을 추진해본 경험을 토대로, 현재는 Boeing 747 항공기 동체 Frame 조립라인을 중소기업으로서는 국내 최대로 2000년 12월부터 가동중에 있다.

1998년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창원공장으로부터 항공사업부문 SQA2000 (CLASS III) 품질시스템 인증획득, 1999년 8월 ISO9002 품질인증, 9월 자체 기술개발부문을 벤처기업지정, 2000년 2월에는 중소기업청 본청으로부터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지정 등 대내외적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국내 항공산업의 일조와 세계적 추세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항공산업에 세계 최고의 전문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전 기업의 핵심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 보원금속(주)

보원금속공업(주)라는 이름으로 1975



년에 창립한 보원경금속(주)(대표이사: 이경환)는 두레에어메탈이 창원공장으로 이전하던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고력 알루미늄합금 압출재에 주력, 1000계열부터 7000계열까지 약 30여가지의 재질을 개발 판매하여, 90년대 초에는 국내 자동차 공조기 부품관련 압출재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실속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1999년에는 중소기업공단이 선정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지난해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2001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보원경금속(주)는 다변화, 국제화되는 시장의 추세에 부응하며, 일류 알루미늄 생산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연구소 설립 이후 Sc첨가 항공기용 압출재의 생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5년 이내에 국내 항공기용 알루미늄 압출재의 수준을 국제시장에 선보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00년도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A등급 평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KATRA)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이 우수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

2001년 6월 19일 KISTEP 주관으로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2000년도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이 A등급을 받았으며, 「2002년도 항공우주기술개발사

업」 조사·분석·평가에서도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 이라고 평가돼 우리조합의 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 받았다.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의 높은 등급평가로 인해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R&D부문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1, 2차년도 사업자금 지원은 아래 도표와 같다.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2차년도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위원회 개최

2차년도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위원회가 6월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구분	2000년	2001년
항공우주부품	30억	70억
다목적실용위성	150억	250억
계	180억	320억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연구조합은 산업자원부와 함께 2001년도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 첫째인 지난해의 27개보다 1.7배가 많은 모두 46개 과제가 신청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 부문이 12건, 유압부문이 3건, 지난해 전무했던 우주분야에서도 4건이나 신청되었으며, 신청업체별로는 중소·벤처기업이 지난해 27%에서 올해는 60%로 크게 늘어난 반면 대기업은 46%에서 16%로 줄었다.

연구조합은 신청과제에 대한 기술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차년도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을 확정, 2001년 9월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

인사
 경력: 이 성 우 과장
 (기획과 / 4월 1일자)
 신입: 신 복 균
 (기획과 / 4월 16일자)